

축제참가자의 지역축제 의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대상으로 —

황 화 석*

A Study of Assessment and Awareness by Local Festival Participants' to the Significance of Local Festival : Case Study of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Hwang, Hwa-Seok*

요약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1」을 대상으로 축제참가자의 지역축제 의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해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가한 축제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대졸학력의 20~40대 연령층과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주를 이루었으며, 외지인과 지역주민 간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지역축제 특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자원 활용경도와 지역축제의 주제 반영정도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주제의 반영정도는 지역주민들의 사례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축제의 의의는 지역주민 화합, 지역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 홍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이다. 여기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은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데 비해 지역주민 화합에는 다른 설문항목에 비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사례축제가 보다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내림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다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마련과 축제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주요어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지역축제, 축제 참가자, 지역축제의 의의, 지역축제 의의 평가

Abstract : This paper is investigated to awareness and assessment by festival participants' to significance of local festival in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2011」. As results, firs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estival participants' in case study are that dominated participants' were twentys to forties consisting consanguine and graduates. There is almost same rate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for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 are that positive responds was dominated at degree of using and respect of local culture resources and main theme reflected to festival. Third, questionnaire items of the significants of local festival are participation desire and real participation rates of citizen to local festival, contribution rate of citizenry reconciliation, effects of regional marketing and increasing regional image, local economy development and rate of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cultural life. In these item, effects of regional marketing is most positive response by Andong citizen and outsiders. And positive response of economical effects is higher outsiders then citizen. However, the contribution rate of citizenry reconciliation is lower then other items to positive response. Therefore, methods of regional embeddedness of case festival are evaluating life quality of local citizen by local festival and leading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to local festival.

Key Words :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Local Festival, Local festival participants', Significance of local festival, Assessments of significance of local festival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지방 즉, 지역이 세계의 타 지역과 직접적인 교류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은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축제는 대표적인 내생적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활용되며(이재하·배기학, 2004), 해당 지역의 독특한 장소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축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는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지방정부는 앞 다투어

* 경북대학교 국제농업개발연구원 교수(Professor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 Development, Kyungbuk National University)(hhs2129@hanmail.net)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축제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단기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 고용창출, 관광산업육성, 여가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주민 화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황화석, 2012). 그러나 지역축제의 행사시기, 소재, 프로그램 등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이 있거나, 예산낭비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갈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황화석·이철우, 2012). 또한, 지나친 관중심의 축제 운영으로 인한 행사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교통혼잡, 주민과 관광객과의 마찰 등, 갈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여영숙, 2009; 황화석, 2012).

최근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장소마케팅 관점에서의 연구(이장주·강경훈, 2003; 황윤용, 2005; 안혜원·류상일, 2008), 축제 참가자의 특성 및 만족도 연구(장병수·구정대, 2004; 이수범·전유정, 2010; 신현식·김창수, 2011), 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장경환, 1996; 장순희, 2001; 문태현, 2005; 김홍수, 2007; 박종일, 2010; 조안나, 2010; 박용환 등, 2012), 지역축제를 참가하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함석중·박선희, 2009; 박용환 등, 2012)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문태현, 2005; 김홍수, 2007; 조안나, 2010; 박종일, 2010)로 대별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제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 연구에서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주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함덕영, 2001). 지역축제의 성공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제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축제연구 및 축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에 관한 연구보다는 단순히 축제 방문객에 의한 평가만 있을 뿐이며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조배행·박종진, 2007).

지역축제의 의의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화합, 지역이미지제고(황화석·이철우, 2012)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제연구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축제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콘텐츠로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가 소비적이며 일회성 이벤트 내지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함석중·박선희, 2009),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은 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한 산업 연관효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주민화합과 실제로 축제 참가자들이 인지하는 지역의 이미지제고와 같은 부분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축제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축제의 의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축제참가자는 지역주민과 외지인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여 축제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지역주민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방문한 축제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문헌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문헌은 지역축제 참가자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다양한 참고문헌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1」에 참가한 축제참가자 552명(외지관광객: 254명, 지역주민: 260

명, 무응답: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1년 10월 2일에서 9일까지 8일간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설문조사분석 대상의 거주유형별 구성비는 지역주민(47.1%)과 외지관광객(46.0%)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유형 항목에 대한 무응답 설문지 38부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안동시민 20명, 외지인 20명을 상대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축제 개최의의(지역주민화합,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에 대한 심층인터뷰도 함께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축제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자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항목에 응답하였다. 설문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축제 참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학력, 나이 등 간단한 신상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특성이다. 이는 축제를 참가하는 사람들의 개별특성이 지역주민과 외지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어떠한 형태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사례축제의 주제와 콘텐츠의 반영 정도에 대한 것이다. 이는 축제의 주제와 지역의 특성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축제평가보고서나 기타 관련 자료에서는 축제의 주제와 콘텐츠에 대한 의견은 축제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조사자에 의해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축제참가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항목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축제참가자가 축제 주제와 콘텐츠가 얼마나 잘 이용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축제 주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축제의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축제의 의의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축제의 의의인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화합, 지역의 이미지제고(지역홍보효과)에 대한 축제참가자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극대화하여 축제의 지속과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지역축제의 개념과 의의

지역축제 의미와 정의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이정덕(1999)은 지역문화의 차원에서 축제를 바라보았으며, 지역축제가 문화적 기제를 통해 상징적 통합기능, 정체성 기능, 헤게모니 기능을 수행하는 장이라고 정의하였다. 유럽사회문화연구소(2006)는 민속적 맥락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기제로서 과거의 의례적 전통에서 변화하였으나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들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백선희(2006)는 축제가 문화성, 지역성, 공동체성, 시공간적 집중성, 유희성, 경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축제의 본질적 목적은 이들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안나(2010)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 또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배울거리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이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반의 행사로 축제를 정의한다. 그리고 황화석(2012)은 일탈성이 전제된 유희적 본성을 가진 축제참가자와 축제주체들이 하나 되는 대동성의 놀이 문화이자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유와 교류의 장(field)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축제는 상이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는 집단 구성원을 결집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광객유입을 유발 할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진다. 또한 축제를 주최하는 단위가 점차 지역의 규모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축제는 특정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와 지역정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지역축제의 의의는 ① 지역주민의 화합(강형기, 1999)과 ②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이장주·박석희, 1999; 오순환, 1999)에 기여하고 ③ 지역이미지의 제고 및 홍보를 통한 관광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들 수 있다. 이를 특히 지역발전에서 있어서의 축제의 의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의의로 요약된다(정강환, 1996; 강형기, 1999; 고숙희, 1999; 오순환, 1999; 이장주·박석희, 1999; 김춘식, 2000; 이장주·강경훈, 2003; 황화석·이철우, 2012).

2)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동향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장소마케팅 관점에서의 연구(이장주·강경훈, 2003; 황윤용, 2005; 안혜원·류상일, 2008), 축제 참가자의 특성 및 만족도 연구(장병수·구정대, 2004; 함석중·박선희, 2009; 이수범·전유정, 2010; 신현식·김창수, 2011), 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정강환, 1996; 장순희, 2001; 문태현, 2005; 김홍수, 2007; 박종일, 2010; 조안나, 2010), 축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문태현, 2005; 김홍수, 2007; 조안나, 2010; 박종일, 2010; 황화석, 2012; 황화석·이철우, 2012),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함덕영, 2001; 박용환 외, 2012)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장소마케팅 관점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지역축제가 지역이 가지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홍보 즉,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축제가 장소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주로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브랜드이며, 이러한 장소브랜드의 활용은 장소마케팅 전략 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장주·강경훈, 2003; 황윤용, 2005; 안혜원·류상일, 2008). 둘째, 축제 참가자의 특성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축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축제의 만족여부가 향후 재방문의 여부 그리고 축제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장병수·구정대, 2004; 함석중·박선희, 2009; 이수범·전유정, 2010; 신현식·김창수, 2011; 황화석, 2012). 셋째, 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축제의 주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민간주도형 조직위원회의 운영이

축제의 성공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정강환, 1996; 장순희, 2001; 문태현, 2005; 김홍수, 2007; 박종일, 2010; 조안나, 2010). 넷째, 축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축제관련 주체들의 거버넌스 평가를 통해 축제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축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축제의 성공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주도형 축제를 벗어나 민간주도형 축제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관련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인 문화거버넌스 구축이 축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본다(문태현, 2005; 김홍수, 2007; 조안나, 2010; 박종일, 2010; 황화석, 2012; 황화석·이철우, 2012).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다(함덕영, 2001, 박용환 외, 2012). 박용환 외(2012)는 축제의 속성이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지역축제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축제의 성공과 발전에 관한 고찰로 결론이 귀결된다. 그러나 지역축제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인 축제참가자들이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실제로 축제의 의의에 해당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바라보는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축제참가자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그리고 외지인과의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안동의 지역성 및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세계는 국가와 도시 등 다양한 공간규모의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각 지역마다 고유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 도시 사이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비슷하고 유사한 성향을 보이겠지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 이처럼 모든 지역들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그 지역

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그 지역의 지역특성이라고 한다. 지역특성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김리나, 2010). 따라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기초로 하는 지역축제도 필연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를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성향 및 인식이 개최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연구대상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안동시의 지역성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은 현재의 보수적이고 전통을 고수하는 지역성을 보이는데 지형적 특성과 역사 문화적 배경이 바탕이 된다. 먼저, 경상북도 북부 내륙지역의 중심지인 안동시는 시가지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낙동강이 흐르며, 침식분지와 범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동강 연안의 소규모 농경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각각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수백 년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의 특성에 의하여 안동지역은 동성(同姓)마을과 보수적 전통을 고수하는 각 마을을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특성들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다(안동시사편찬위원회, 1999). 이러한 분지지형의 특성은 전쟁의 피해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삼국시대를 비롯한,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안동지역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 영남학파의 본산으로서 유림들이 협동하여 서인 내지 노론 정권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남인의 입장을 고수하며, 성리학의 본산인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영남학파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서원을 설립하여 유학교육과 후학양성에 힘쓰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힘은 약해지고 서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세력이 커져 이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강화되었다(안동시사편찬위원회, 1999).

또한 안동은 유교의 도량으로서 조선시대 이후

부터 지방정부의 역할보다는 재지사족들에 의해 안동지역의 영향력 있는 유력자로서 자치적 향촌문화를 형성하여 경제·문화·행정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안동시사편찬위원회, 1999). 이러한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한 유림 및 사대부 문화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핵심요소인 하회별신굿이 생겨나게 된 문화적 토대가 되었다. 즉, 하회별신굿은 공동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반과 상민의 대립과 반목을 극복하는 상생문화의 표상이기도 하다. 하회탈과 탈놀이에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비판하는 안동사람들의 정신이 표출되어 있다. 이러한 하회별신굿놀이가 전통적인 마을굿으로 행해진 것은 1928년이 마지막이고, 1940년 12월 14일 한 차례 탈놀이가 개최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부활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었고 1973년 10월에 안동하회가면극연구회가 창립하였다. 이 연구회는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원형을 재연하였다(박진태, 2006). 그 결과 198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는 지역축제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안동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지역축제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동시라는 지방정부의 영향력보다는 유림문화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지방정부가 중심이 아닌 지역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안동의 지역성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은 지역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생적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제도적 환경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개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주요 주제이며, 그 외 안동민속축제인 남성대동놀이의 차진놀이, 여성대동놀이인 뚝다리밟기 등 안동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1997년 10월 1일부터(1일~5일) 5일에 걸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16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안동민속축제는 같은 기간 제44회가 개최되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낙동강변의 탈춤공원과

하회마을 그리고 안동시내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국내 탈춤공연으로 가산오광대, 고성오광대 등이 있고, 국외 탈춤공연으로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등의 공연이 있다. 그리고 내방가사, 경연시연, 뾰족리밟기 등의 민속행사, 마스크댄스 경연대회와 같은 경연대회, 인형극, 마임체험, 세계탈전시회 및 창작탈전과 같은 전시행사 등을 들 수 있다. 탈춤공연에서는 탈춤공연과 마당극 그리고 민속행사, 각종 경연대회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며, 하회마을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비롯한 국내탈춤공연과 국외탈춤공연, 선유줄불놀이, 강신마당 하회마을 집들이 등과 같은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안동시내 일원에서는 거리 퍼레이드와 같은 게릴라성 공연이 개최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에는 안동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방문객수는 총 1,075,452명(지역민 393,436명, 외지인 640,640명, 외국인 41,376명)으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성공적인 축제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2011년에는 세계 30개국 문화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역축제로 발전하였다(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11).

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설문조사 결과

1) 축제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참여 형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참가한 참가자들 연령은 20~40대가 주를 이루며,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표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인적사항	항 목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나이	20대 이하	64	(24.6)	51	(20.1)
	30대	90	(34.6)	88	(34.6)
	40대	71	(27.3)	75	(29.5)
	50대	24	(9.2)	21	(8.3)
	60대 이상	10	(3.8)	16	(6.3)
	무응답	1	(0.4)	3	(1.2)
	계	260	(100)	254	(100)
최종학력	고졸	46	(17.7)	47	(18.5)
	대학재학	11	(4.2)	36	(14.2)
	대졸	106	(40.8)	112	(44.1)
	대학원졸	21	(8.1)	21	(8.3)
	기타	17	(6.5)	20	(7.9)
	무응답	2	(0.8)	18	(7.1)
	계	260	(100)	254	(100)
직업	공무원	27	(10.4)	33	(13.0)
	전문직	41	(15.8)	36	(14.2)
	학생	58	(22.3)	47	(18.5)
	사무직	25	(9.6)	36	(14.2)
	생산직 및 일용직	7	(2.7)	6	(2.4)
	농수산업	10	(3.8)	11	(4.3)
	가정주부	52	(20.0)	56	(22.0)
	기타	34	(13.1)	25	(9.8)
	무응답	6	(2.3)	4	(1.6)
	계	260	(100)	254	(1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2. 사례축제 참여 동기

(단위: 명, %)

항 목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명	%	명	%
축제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	103	39.6	132	52.0
탈과 탈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11	4.2	12	4.7
가족(친구)과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06	40.8	89	35.0
자원봉사	21	8.1	4	1.6
기타	17	6.5	17	6.7
무응답	2	0.8	0	0.0

많았다. 학력은 대부분 대졸 학력이었으며, 외지인과 안동시민 사이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직업 분포에 있어서 안동시민과 외지인들 모두 공무원, 학생, 전문직, 가정주부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외지인의 경우 사무직의 비율이 안동시민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축제참여 동기는 외지인과 안동시민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축제 참가자 가운데 안동시민들은 가족(친구)과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40.8%)을 보이며, 축제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39.6%)을 보였다. 외지인의 경우 축제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32명으로 52%에 달하는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족(친구)과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35%의 응답률을 보여 축제참여 동기가 축제를 즐기기 위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외로 탈과 탈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율은 지역주민(4.2%)과 외지인(4.7%) 모두 낮았다.

축제 참여횟수는 안동시민의 경우 5회 이상 참여자가 36.2%에 달하며, 대부분의 안동지역사람들은 사례축제를 3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지인의 경우 당해 연도 축제에 처음 참가한 사람이 57.9%에 달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찾아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설문대상자들 가운데 안동시민들은 거주지인 안동에서 개최되는 큰 축제가기도 하고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서 축제가 개최되므로 여유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년 축제에 참가한다고 응답했다.

2) 사례축제의 주제에 대한 인식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설문참여자 552명 가운데 거주 지역에 대한 무응답 38명을 제외한 514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축제 참가자들의 축제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설문 항목별 인식의 정도는 총 5개의 단계(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임, 대체로 그렇지 못함, 매우 그렇지 못함)로 구분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의 점수는 매우 그러함이 5점이며, 매우 그렇지 못함이 1점으로 순차적으로 점수를 주어 평균값을 취했다. 이것은 안동시민과 외지인 사이의 인식차이를 한눈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먼저, 지역 문화자원인 하회탈과 탈춤의 활용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례축제의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지역민과 외지인이 모두 높다. 그러나 지역민의 경우 리커트 척도가 4.03이며, 외지인은 3.90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지역주민들이 지역 문화자원을 약간 더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안동시민들은 안동의 하회탈과 탈춤이 자신들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이 축제의 주제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의 문화자원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표 3. 사례축제 참여 횟수 (단위: 명, %)

항 목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명	%	명	%
1회	34	(13.1)	147	(57.9)
2회	36	(13.8)	52	(20.5)
3~5회	77	(29.6)	44	(17.3)
5회 이상	94	(36.2)	10	(3.9)
무응답	19	(7.3)	1	(0.4)

표 4. 사례축제의 지역 문화자원 활용 정도

(단위: 명, %)

정 도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명	(%)	명	(%)
매우 잘 활용하고 있음	72	(27.7)	52	(20.5)
대체로 잘 활용하고 있음	130	(50.0)	138	(54.3)
보통임	52	(20.0)	56	(22.0)
대체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	3	(1.2)	5	(2.0)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음	2	(0.8)	1	(0.4)
무응답	1	(0.4)	2	(0.8)
리커트척도 평균	4.03		3.90	

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외지인의 경우도 안동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장소자산은 하회마을, 하회탈, 선비의 고장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탈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안동의 지역문화자원을 표현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약적이며 안동만이 탈문화가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이라는 주제보다 하회탈과 같이 직접적으로 안동을 상징하는 자원을 활용하였으면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러한 응답은 설문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부정적인 의견 표현을 꺼리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축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축제에서 주제가 반영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민은 73.1%, 외지인은 67.0% 정도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5). 리커트척도 평균은 안동시민의 경우 3.93으로 외지인보다 0.06정도 높다. 외지인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외지인보다 지역민이 지역축제의 주제 반영 정도를 보다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2011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개최되던 당시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프로그램과 축제의 내용이 축제의 주제를 잘 반영하는 등 수준 높은 축제였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안동시민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축제 의의에 대한 인식

지역축제의 의의는 지역주민 화합,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지역홍보효과이다. 축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도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화합에 평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지역축제 대부분 지역주민 화합의 장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유기적 통합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해당 항

표 5. 사례축제의 주제 반영 정도

(단위: 명, %)

정 도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명	(%)	명	(%)
매우 잘 반영하고 있음	71	(27.3)	69	(27.2)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음	119	(45.8)	101	(39.8)
보통임	52	(20.0)	72	(28.3)
대체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17	(6.5)	8	(3.1)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0	(0.0)	2	(0.8)
무응답	1	(0.4)	2	(0.8)
리커트척도 평균	3.93		3.87	

목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축제 방문객들이 사례축제에서 이와 같은 의의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조건이다. 사례축제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참여욕구 정도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과 외지방문객 사이에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민은 63.9%, 외지인은 54.3%가 지역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표 6). 리커트 척도 평균은 지역주민이 3.80이며, 외지인은 3.60으로 외지인들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욕구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주관적인 경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경우 본인과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응답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비교적 잘 반영되는데 반해, 외지인들은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거의 없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인터뷰에서 외지인들의 경우 큰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보

다 외지인이 더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므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실제 참여정도에 대한 응답은 지역주민의 참여욕구 보다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73.1%, 외지인은 51.0%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리커트척도 평균은 지역주민이 3.87, 외지인은 3.60으로 외지인들의 인식이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은 예로부터 율림과 재지사족의 권한과 역할이 커서, 지방정부가 이들의 협력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성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성으로 인하여 안동은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자생단체가 지역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외지인들은 지역주민 참여욕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참여정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례축제가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정도에

표 6. 사례축제의 지역주민 참여욕구

(단위: 명, %)

정 도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매우 그러함	53	(20.4)	30	(11.8)
대체로 그러함	113	(43.5)	108	(42.5)
보통임	84	(32.3)	106	(41.7)
대체로 그렇지 못함	8	(3.1)	6	(2.4)
전혀 그렇지 못함	2	(0.8)	2	(0.8)
무응답	0	(0.0)	2	(0.8)
리커트척도 평균	3.80		3.60	

표 7. 사례축제의 지역주민 참여정도

(단위: 명, %)

정 도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매우 그러함	47	(18.1)	34	(13.4)
대체로 그러함	143	(55.0)	121	(47.6)
보통임	61	(23.5)	93	(36.6)
대체로 그렇지 못함	8	(3.1)	2	(0.8)
전혀 그렇지 못함	1	(0.4)	2	(0.8)
무응답	0	(0.0)	2	(0.8)
리커트척도 평균	3.87		3.60	

표 8. 사례축제의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정도

(단위: 명, %)

정 도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명	(%)	명	(%)
매우 그러함	44	(16.9)	39	(15.4)
대체로 그러함	134	(51.5)	138	(54.3)
보통임	69	(26.5)	68	(26.8)
대체로 그렇지 못함	9	(3.5)	4	(1.6)
전혀 그렇지 못함	3	(1.2)	4	(1.6)
무응답	1	(0.4)	1	(0.4)
리커트척도 평균	3.78		3.79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과 외지인이 각각 68.4%, 69.7%이며 리커트척도 평균은 지역주민 3.78, 외지인 3.79로 모두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설문조사 과정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참여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데 비하여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심층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지역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니 지역주민화합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므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의 부재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지역주민화합에 사례축제가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역축제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의 경우 68.1%, 외지인의 경우 70.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리커트척도 평균은 지역주민이 3.81이며, 외지인은 3.85이다. 이 항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의 응답률이 비슷하지만 외지인들이 약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정적인 인식은 지역주민(6.5%)과 외지인(1.2%)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외지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축제에 참가하여 소비 활동을 함으로써 이것이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도 지역축제가 개최됨으로써 외지인들의 방문이 증가하여 지역의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는 지역축제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찬성하지만, 일회성 방문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이 87.4%, 외지인은 82.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리커트척도 평균은 각각 4.32와 4.19로 설문항목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많다(표 10). 특히 지역

표 9. 사례축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단위: 명, %)

정 도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명	(%)	명	(%)
매우 그러함	60	(23.1)	47	(18.5)
대체로 그러함	117	(45.0)	132	(52.0)
보통임	65	(25.0)	70	(27.6)
대체로 그렇지 못함	10	(3.8)	2	(0.8)
전혀 그렇지 못함	7	(2.7)	1	(0.4)
무응답	1	(0.4)	2	(0.8)
리커트척도 평균	3.81		3.85	

표 10. 사례축제의 지역홍보 및 이미지제고에 기여하는 정도

(단위: 명, %)

정 도	안동시민(260명)		외지인(254명)	
매우 그러함	120	(46.2)	101	(39.8)
대체로 그러함	107	(41.2)	108	(42.5)
보통임	29	(11.2)	41	(16.1)
대체로 그렇지 못함	3	(1.2)	1	(0.4)
전혀 그렇지 못함	1	(0.4)	1	(0.4)
무응답	0	(0.0)	2	(0.8)
리커트척도 평균	4.32		4.19	

주민의 경우 축제가 지역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매우 기여한다는 응답이 46.2%로 대체로 기여한다는 응답(41.2%) 보다 높다. 외지인은 매우 기여한다는 응답(39.8%)보다 대체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42.5%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지역을 홍보하고 축제 개최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데는 지역주민과 외지인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지역주민들이 외지인들보다는 지역축제의 지역홍보에 대한 순기능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고 찰

지역축제의 의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화합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이다. 대부분의 축제 평가보고서를 포함한 축제 연구는 지역축제의 의의가 축제를 개최하는 주요한 이유로 인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제의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화합에 대한 인식과 지역 홍보 효과에 대한 방문객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화합과 지역의 홍보 효과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례축제의 참가자들의 지역축제의 의의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는 흥미롭다.

먼저, 축제참가자의 참여 동기와 참여 횟수는 지역주민과 외지인사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외지인들의 참가 동기는 축제참여가 주를 이루나 지역주민들은 가족 및 지인들과의 여가시간

을 보내기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발전연구소(2013, 2014)에서 실시한 축제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지역주민보다 외지인의 축제 참여 동기가 축제참가로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지인들은 축제 관람이 축제참가의 주요 목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제참여 횟수는 지역주민이 월등히 많다. 본 설문결과 뿐만 아니라 2011~2014년도까지 외지인들은 축제참여 횟수가 2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이나 지역주민은 3회 이상이 70% 내외이며 5회 이상 관람한 비율도 30% 이상이다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3; 2014).

둘째, 축제를 참가한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축제의 주제와 지역의 문화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안동시민들이 안동의 문화자산인 탈과 탈춤에 대한 축제 반영정도가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심층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이러한 응답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지인의 경우는 탈과 탈춤과 관련 없는 제품의 판매나 행사가 축제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며, 되도록 축제의 주제와 통일된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축제의 의의는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 홍보 효과에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역주민화합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다. 또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응답은 모든 설문항목 가운데 외지인의 긍정적인 응답이 지역주민보다 높은 유

일한 항목이었다. 외지인들은 지역주민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며, 축제 관람일수도 안동시민들은 1.5일인데 반해 1.9일(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1)로 대부분 1박 2일의 형태로 참가하여 축제를 관람함과 동시에 안동지역을 관광하면서 다양한 소비활동을 함에 지역사회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2011년도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축제가 때문에 전국적인 홍보가 활발하여 축제 관람객이 당시 약 107만 명이 축제에 참가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축제로 기록되고 있다. 실제 심층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회마을을 제외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별로 없으며, 이미 하회마을을 다녀온 사람들은 축제가 아니라면 굳이 다시 안동에 찾아올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안동지역에 방문할 의사가 생겼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였으므로 지역홍보효과에 대한 인식이 축제의 의의 항목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역축제는 지역의 홍보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역주민화합의 측면도 중요하다. 지역주민화합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축제의 주체가 지역주민임을 확인하고 함께 어울리며,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축제로 만들어간다. 그러나 사례축제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화합 효과에 대하여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았다. 이것은 축제가 지나치게 소비적이며 일회성 이벤트 내지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함석중·박선희, 2009). 뿐만 아니라 행사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의 부족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교통 혼잡, 주민과 관광객과의 마찰 등, 갈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여영숙, 2009; 황화석, 2012). 또한, 지역주민들의 축제를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곽용환 외, 2012).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다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마련과 축제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축제가 보다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의의에 대하여 축제 참가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평가 및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축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1」이다. 사례축제는 전통적으로 유림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중심세력으로 기반을 다져 온 안동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연구조사가 이루어지던 당해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타 축제들의 벤치마킹이 되는 성공적인 축제이다. 사례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의 축제 및 축제의 의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대졸학력의 20~40대 연령층과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주를 이루며, 외지인과 지역주민간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지역축제 특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문화자원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주제의 반영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사례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축제의 의의는 지역주민 화합,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이다. 여기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은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데 비해 지역주민 화합에는 다른 설문항목에 비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사례축제가 보다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 내림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다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마련과 축제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11년도에 개최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1」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전 년도에 비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서포터즈로 지칭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가가 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에서도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의 축제의 의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축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인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주

- 1) 현재는 명품축제로 승격되었으며, 당시에는 대표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가장 상위 축제에 해당됨

문헌

- 강형기, 1999, 지역축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 명확한 축제테마, 주민참여, 지역문화 함께 이뤄져야, 지방행정, 48(552), 29-36.
- 고숙희, 1999,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경제적 효과 : 단양온달문화축제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33(2), 199-215.
- 곽용환·서철현·김병국, 2012,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인식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5(8), 3127-3144.
- 김리나, 2010, 안동시의 지역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 지역기능을 중심으로, 경북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춘식, 2000, 문화행정의 개혁과 지방축제-지방도시에서의 축제를 통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사례 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자치, 동계학술세미나, 53-67.
- 김홍수, 2007, 축제와 문화 거버넌스, KSi한국학술정보(주).
- 문태현, 2005,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분석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2), 337-358.
- 박종일, 2010, 지역문화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및 참여 주체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선혜, 2006, 도시문화전략으로서 지역문화축제의 지향점과 구성요소 정립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일본 지역문화축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지리학연구, 40(1), 107-125.
- 신현식·김창수, 2011,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이 축제매력성과 방문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6(3), 225-244.
- 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1 평가보고서, 안동탈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3 평가보고서, 안동탈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4 평가보고서, 안동탈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안동시사편찬위원회, 1999, 안동시사 -1권 '安東의 歷史'편-, 안동시청.
- 안혜원·류상일, 2008,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 : 충북지역 축제 및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19(2), 27-45.
- 여영숙, 2009,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전망 -순천만 갈대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3(4), 384-401.
-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06, 축제정책과 지역현황,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순환, 1999a, 지역축제의 실제와 경제적 효과 -이천 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202-221.
- 이수건, 1986, 17·18세기 안동지방 유럽의 정치 사회적 기능, 대구사학, 30(1), 163-237. 165-185.
- 이수범·전유정, 2010, 지역축제에서 음식판매장 선택속성이 음식판매장 및 축제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4(1), 35-49.
- 이장주·강경훈, 2003, 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3(2), 161-188.
- 이장주·박석희, 1999,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진도영등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243-261.
- 이정덕, 1999,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정근식

- 편집, 새길.
- 이재하·배기학, 2004, 청도 소싸움 축제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624-641.
- 장병수·구정대, 2004, 지역축제 참가자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밀양문화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6(1), 19-37.
- 장순희, 200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한국 행정학회 발표논문집, 203-220.
- 정강환, 1996,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 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11(3), 30-59.
- 조배행·박종진, 2007,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차이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68-81.
- 조안나, 2010, 지역 축제 장소마케팅 전략에서 나타난 로컬 거버넌스 조직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태, 2006, 중요무형문화재 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6, 도서출판 피아.
- 함덕영, 2001, 지역축제이벤트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함석중·박선희, 2009,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동해 수평선 축제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23(1), 191-206.
- 황윤용, 2005, 지역축제의 장소마케팅노력에 대한 장소브랜드 관계결속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9(2), 255-276.
- 황화석·이철우, 201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141-160.
- 황화석, 2012, 지역축제 거버넌스의 구조의 특성과 평가에 관한 비교연구-안동탈춤과 문경차사발축제를 사례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신 : 황화석,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국제농업개발연구원(이메일: hhs2129@hanmail.net)
Correspondence : Hwang, Hwa-Seok,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 Development,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E-mail: hhs2129@hanmail.net)
- (접수: 2015.01.22, 수정: 2015.05.13, 채택: 2015.05.20)